



안
교
성

세계선교운동사와 선교사 철수계획

안교성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선교는 임시적이고 점차 권위가 축소되는 기구이며, 현지 교회는 영원하고 점차 권위가 증가하는 기구이다...크고 강력하며 포괄적인 외국 선교부를 설립하는 정책은 내재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¹

I. 서론

선교사 철수계획의 도전

최근 들어, 한국 선교계에서 선교사 철수계획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² 만시지탄의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것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이런 논의가 한국 교회 앞에 좋

1 A. J. Brown, *The Why and How of Foreign Missions* (New York: Young People's Missionary Movement of the US & Canada, 1908), 161

은 결론을 내놓고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동시에 선교사 출구계획에 대한 한국교회와 한국선교의 대응이 단순히 대안 모색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방콤포럼의 주제가 선교사 철수계획이다. 포럼의 주제가 너무 광범위할 경우 효과적인 토의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너무 좁아도 전체적인 문제를 놓치고 만다. 따라서 이번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제한된 문제에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선교사 철수계획이라는 주제 자체가 결코 작은 주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주제를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토의가 이번 방콤포럼에서 이뤄지리라고 기대해 본다.

서론 부분에서 이 주제의 한계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첫째, 이 주제는 선교사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선교사와 현지인의 입장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지인이 생각하는 선교사 출구계획은 선교사가 생각하는 출구계획과는 개념이나 강조점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선교사 출구계획마저 또 다른 선교사 일방주의적 행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교사 마음대로 왔다가 선교사 마음대로 가겠다는 것은 안 된다.

둘째, 이 주제는 선교사 개인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집단의 입장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2 신성주, <〈터문화 선교리더십〉〉 (서울: 생명의 양식, 2009), 145-255; 남정우, <〈이야기로 풀 선교학〉〉 (서울: 도서출판 케노시스, 2012), 424-473. 또한 "특집: 선교_이양과 위임", <한국선교 KMQ〉 28(8/2, 2008, 겨울): 11-60; 변창욱, "한국교회의 자립 선교 전통과 비저립적 선교형태", <선교와 신학〉 27(2011, 봄): 239-278; 조준형, "선교사 은퇴를 위한 협력과 이양", <선교와 신학〉 28(2011, 가을): 151-187.

선교사 측에서도 선교사는 물론이고 현지 선교회, 선교기관(교단 선교부 및 초교파 선교회), 본국 교회 및 교단 등이 전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현지인 측에서도 현지인 지도자는 물론이고, 현지 교회(공동체), 현지인 교단(만일 존재한다면) 등이 전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에큐메니칼 기구(복음적이든, 공의회적이든)가 존재한다면, 선교사 본국의 에큐메니칼 기구, 선교지의 에큐메니칼 기구, 나아가 세계 에큐메니칼 기구 등이 전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이 주제는 선교 발전단계의 마지막 부분에 집중하여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출구전략은 선교발전 전 과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출구전략은 한편으로는 입구전략과 연결되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구 후] 지속전략과 연결되어야 한다.³ 다시 말해, 입구전략, 출구전략, [출구 후] 지속전략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입구전략과 출구전략 사이의 기간에 해당하는 유지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즉 선교발전 과정은 입구전략, 유지전략, 출구전략, [출구 후] 지속전략 등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넷째, 이 주제는 자칫 이양 문제에만 집중하여 논의될 수 있다. 이양은 대개 선교재산 및 지도력 위임 문제로 국한된다. 그러나 선교사 출구계획은 현지 교회의 전반적인 토착화와 연결되어야 한다.

본 발제문은 세계선교 운동사 가운데 선교사 출구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회고하고자 한다. 이에 기초하여 그 미래를 전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일은 다른 발제문과 포럼의 논의가 담당할 것이다.

3 남정우는 그의 책에서 입구전략과 출구전략을 언급한다. 이미 〈한국선교 KMQ〉의 특집에 실린 글에서도 출구전략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입구전략과 출구전략은 이것은 출구전략 이후의 전략, 혹은 현지인 중심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출구 후] 지속전략으로 보충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지도력 위임과 관련되어 성서에서 그 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기도 했는데, 이런 결과가 선교사 출구계획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경우는 드물다. 바울의 경우는 예외라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기존의 논의는 주로 실용적인 접근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접근이 여전히 필요하다.

그러나 본 발제문은 제한된 분량이라 대표적인 사례 중심으로 특징적인 면과 중요한 문제점들을 유형별로 소개하는데 그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발제문이기에 각주와 참고문헌은 최소한으로 하고, 추후에 본격적인 논문을 발표하기로 한다.

II. 본론

1. 선교사 위주의 선교와 선교사 출구계획

1) 바울의 선교

기독교 선교의 대표적인 선교사요 사실상의 타문화권 선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선교사는 바로 바울이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선교에 있어서 바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바울의 선교의 특징은 다양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선교사 출구계획과 관련하여 몇 가지만 언급하기로 하자.

가. 약자의 선교

바울의 선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약자의 선교이다. 오늘날 우리는 근대선교에 익숙해 있는데, 근대선교의 특징은 강자의 선교이다. 사실상 오늘날 선교사 출구계획, 특히 이양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근대선교 및 근대선교의 영향을 받은 현대선교가 강자의 선교 모습을 지녔기 때문이다. 강자의 선교는 강자 위주의 선교, 강자가 시작하는 선교인데, 이런 형태의 선교가 계속될 수 없기 때문에, 이양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만일 이런 형태의 선교가 계속될 수 있다면, 이양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강자의 선교에 있어서 이양은 당연한 귀결이기보다 부득이한 결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선교의 경우도 그동안 소위 성장 패러다임이 중심이었고 이양 패러다임이 대두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이양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선교 본질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한국교회의 쇠퇴와 선교현장의 문제 등 외부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경향이 크다. 물론 이양에 대한 무관심 혹은 아예 이양 의식부재 현상은 기독교 선교의 대부분의 기간에 나타났다.

각설하고, 바울은 약자로서 선교함으로써, 오늘날의 선교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선교하였다. 즉 복음과 성령 중심의 선교를 할 수 있었으며, 선교지의 교회를 책임지거나 선교재산을 획득하거나 선교기지를 만들거나 교육·의료·구제 등 선교재정이 필요한 사역을 하지 않았다.⁴ 다시 말해, 바울의 경우, 지도력 위임의 문제는 있었지만, 선교재산이나 선교재정의 문제는 아예 없었던 것이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4 바울이 운영한 '두란노서원'의 경우도, 시설 투자를 하거나 방대한 체재를 운영하는 등 정착형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데 가난을 구제하기 위한 현금 문제가 간혹 나타나지만, 바울의 사역 전반에 비춰볼 때 예외적인 것이었다. 바울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선교의 문제라기보다 교회의 문제라고 보았고, 교회가 해결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이양의 핵심 문제인 선교재산이나 지도력 위임은 바울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문제였다.

나. 현지인 중심의 선교

바울과 바울의 선교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바울은 교회 설립에 있어서, 소위 선교교회(선교사 지도력 하의 교회)에서 토착교회로 이전하는 모델이 아니라, 처음부터 토착교회가 성장하는 모델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울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복음을 전한 뒤 토착교회에 집중적인 기간 동안 머물면서 전도와 교육을 하였고, 현지인 중심, 현지인 지도자 중심의 교회를 남겨둔 채 떠났던 것이다. 떠난 뒤에 재방문 혹은 동역자 파견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교회를 떠날 때는 그 교회를 독자적인 교회로 여겼던 것이다. 바울 선교의 이런 측면을 강조한 것이 바로 롤란드 알렌이었다.⁵ 만일 중국 선교사가 롤란드 알렌의 지적을 적극적으로고도 비판적으로 수용했다라면, 중국 공산당의 승리와 그에 따른 공산정권 수립에 따라 중국선교가 갑작스럽게 중단되어 혼란에 빠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⁶

5 롤란드 알렌, 김남식 역, 《바울의 선교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1998).

6 David M. Paton, *Christian Missions & the Judgment of God*, second ed.;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6.

다. 선교단 중심의 선교

바울의 선교는 현지인 중심의 선교인 동시에 선교단 중심의 선교였다. 선교단 중심의 선교는 세 가지를 의미한다. 즉 이동식 선교, 팀 선교, 현장 중심의 선교이다.

첫째, 이동식 선교였다. 즉 바울은 특정 지역에 선교본부나 선교지부를 만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동하였다. 따라서 선교기지, 혹은 거류지, 혹은 선교센터 형의 선교를 하지 않았다.⁷ 오늘날 한국선교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선교센터이다. 그동안 많은 선교사들이 분명한 목적도 없이 선교센터 중심의 종합적인 선교를 계획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왔다. 이제는 이런 형태의 선교를 점검하고 평가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런 형태의 선교는 선교재산 문제가 나타난다. 선교사의 사유화 내지 현지인의 선교재산 탈취 등을 들 수 있다. 더구나 아래에서 언급하겠지만, 사역의 개인화에 따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선교세습 내지 후임자 선정의 불공정성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팀 선교였다. 그런데 한국선교는 개인적 선교 형태에 익숙하고, 그런 형태가 두드러졌다. 필자도 한국선교의 문제의 핵심은 사역의 개인화라고 지적한 바 있다.⁸ 더구나 최근에는 선교사 중도탈락율이 높아지고 있어, 선교사 개인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사역을 벌릴 경우, 실패할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특히 한국의 경우, 선교사가 개인적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양의 문제는 사역 자체의 스케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교사의 중도탈퇴나 은퇴 등의 이유에 의해서 대

7 도널드 맥기브란, 이광순 역, 《〈하나님의 선교전략〉》(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맥기브란은 선교기지와 거류지를 구분하는데, 상세한 내용은 그의 《〈하나님의 선교전략〉》 참조. 또한 선교기지와 선교센터는 비슷하지만 다르다. 그 이유는 서구선교의 선교기지는 주로 현지 선교회 위주로 운영되지만, 한국선교의 선교센터는 주로 선교사 개인 위주로 운영된다.

8 안교성, "구술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세계 선교의 우선적 과제, 협력", 《목회와 신학》(2008,11): 174-182, 특히 175.

두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다. 이 경우, 조급한 이양 혹은 선교사의 선교지 정착을 위하여 이양 거부 현상이 초래되는 것이다.⁹

그런데 선교역사를 보면, 팀 선교를 한 경우가 많다. 한국장로교회의 경우도, 최초의 선교인 제주선교 및 최초의 타문화권 선교인 산동선교의 경우, 팀 선교를 했다. 팀 선교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선교사 출구계획 특히 이양에 있어서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팀 선교가 이뤄질 경우, 선교의 입구전략과 출구전략, 나아가 [출구 후] 지속전략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마련될 수 있다. 더구나 현지인과의 협력을 고려한다면, 입구전략, 유지전략, 출구전략, [출구 후] 지속전략도 새롭게 이해되고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장 중심의 선교였다. 바울의 경우, 지도자가 계속 현장에 있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새로운 선교 동료들이 선교단 안에 함께 있으면서, 사역, 교육, 성장 등을 경험하였다. 요즘 말로 현장훈련(on-site or field training)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선교의 중심이 바로 선교 현장 혹은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단에 있었다. 근대 개신교선교가 시작되면서, 선교본부와 현지 선교회가 지역적으로 양분되고, 현장과 거리가 먼 선교본부가 주도권을 가짐에 따라 선교본부와 현지 선교회가 갈등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이런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근대 개신교선교에 있어서도 현장 중심의 선교를 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가령, 근대 개신교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케리의 경우도, 결국 선교본부와 현장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선교회를 떠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¹⁰ 또한 해

9 황윤일, "선교사 은퇴 후 복지 문제," <선교와 신학> 28(2011, 가을): 189-220, 특히 195, 210.

10 Brian Stanley, *The History of the Baptist Missionary Society, 1792-1992* (Edinburgh: T & T Clark, 1992), 57-67.

안선선교에서 내지선교로 전환하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제시한 중국내지선교회(오늘날 OMF)의 경우도 선교회 설립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선교 주도권을 본국이 현장에서 갖는 것이었다.¹¹ 현장 중심의 선교가 건전하고 지혜로운 한, 보다 건실하고 효율적인 사역을 결정할 수 있을 가능성은 높고, 그런 사역은 선교사 출구계획에 있어서도 문제의 소지가 적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늘날 한국교회의 경우, 선교본부 격인 교단 선교부, 초교파 선교회 혹은 후원 교회나 선교 본부화된 대형교회가 선교지 현실과 적합하지 않은 사역을 강요할 경우가 많은데, 대개 이런 사역은 선교사 출구계획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의 유산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¹²

물론 바울식의 선교를 모든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바울의 선교의 교훈은 깊이 음미할 만하다. 다시 말해, 바울의 선교를 적극 수용할 경우, 선교사 출구계획에서도 큰 도움을 받거나, 아예 선교사 출구계획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 수도권 중심의 선교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최근 각광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위 켈트 기독교(Celtic Christianity)의 선교 혹은 켈트 수도원식 선교이다.¹³ 켈트 수도원식 선교가 선교사 출구계획과 관련하여 의미를 갖는 것은, 켈트 수도원식 선교는 결국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형 선교였다는 것이다.

11 Klaus Fiedler, *The Story of Faith Missions* (Oxford: Regnum, 1994), 33. 기령 다음 조항들을 살펴볼 수 있다. "Missionaries are not employees, but members of the mission," "Leadership is centralistic. The mission is field-directed. Home councils are only to represent the mission in a given country, not to direct the mission."

12 변창욱, "한국교회의 자립 선교 전통과 비자립적 선교형태", 264—265.

13 George G. Hunter III, *The Celtic Way of Evangelism: How Christianity Can Reach the West...Again* (Nashville: Abingdon Press, 2000).

흔히 선교지 교회의 자립이 관심의 대상인데, 사실 현지 선교회의 자립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이유는 현지 선교회가 자립형일 경우, 선교본부가 선교재정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고, 또한 자립형의 현지 선교회는 자립형 선교지 교회로 확장되거나, 자립형 선교지 교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선교지 교회는 현지 선교회에, 현지 선교회는 선교본부에 의존하는 형태의 선교를 지양할 수 있을 것이다.

켄트 수도권 이외에도 중세의 탁발수도회인 프란시스코 선교회의 경우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프란시스코 선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이 선교회는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둘째, 가난 곧 무소유가 가장 효율적인 선교 양상이라고 이해하여, 무소유와 탁발(구걸)을 택하였다. 그러나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대로, 신앙은 성실을 낳고 성실은 부를 낳는데, 이에 따라 탁발수도회인 프란시스코 수도회도 역설적으로 결국 재산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재산을 유지하자는 온건파와 원래의 이상을 고수하자는 극단파 간에 갈등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런 갈등에 대하여 상술할 수는 없지만, 선교사와 선교기관의 청빈의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선교사와 선교기관이 재정적 능력을 확보하고 확장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경우, 과연 그런 능력이 선교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효율적인지, 그런 선교사와 선교기관이 건전한 현지 교회의 설립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추세가 오히려 선교사 출구계획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일반적인 추세와는 상반되지만, 선교사역을 최소한으로 하는 일, 혹은 현지인 수준에 맞추

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선교 역사상, 현지인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시작한 선교사역이 성공적으로 이양되고 지속된 사례는 거의 없다. 심지어 한국의 경우, 그런 사역의 이양은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도 있다.

3) 주도권 확보의 선교

근대에 가톨릭 및 개신교 선교가 본격화되기 이전에도 선교는 다양하게 이뤄졌다. 그런데 당시의 선교의 특징 가운데 선교사 출구계획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도권 확보의 선교의 형태이다. 가령, 영국에서 켈트 기독교의 선교가 이미 이뤄지고 있는데, 후발주자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결국 휘트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중세 초기에는 동유럽 지역에서 슬라브어 사용 교회와 라틴어 사용 교회 간의 주도권 다툼이 있었다. 몽골제국 당시에도 네스토리안 기독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 사이에 주도권 갈등이 있었다. 이런 식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투쟁은 기존의 선교사 퇴장을 늦출 뿐 아니라, 새로운 선교사 입장을 초래하여 선교의 소모전을 지속시키고 있다.

가령 한국선교의 경우, 필리핀장로교회 설립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미시적인 관점과 선교사의 관점에서 보면 선교연합의 좋은 예다. 합동측이 필리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통합측이 별도의 장로교회를 세우지 않고 합동측과 협력하였다.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과 현지인의 관점에서 보면 선교분열의 예가 된다. 이미 미국복장로교회 및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필리핀연합그리스도교회를 세웠는데, 굳이 다시 교파교회를 설립한 것이다. 박기호의 주장대로, 만일 신학적인 이

유 때문에 필리핀연합그리스도교회가 아닌 교회가 필요했다면,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기보다 필리핀의 다른 복음주의와 협동하는 것이 발전된 선교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¹⁴ 즉 불필요한 선교를 시작하지 않는 것도 선교사 출구계획의 중요한 측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4) 선교사로부터 현지인으로 이전하는 선교

전통적인 선교 형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면서도 오랜 기간에 걸쳐 이행되어 왔고, 또한 현재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형태가 바로 선교사로부터 현지인으로 이전하는 선교이다. 이런 형태의 선교가 선교사 출구계획과 관련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현지인 교역자 배출 지연

근대선교는, 가톨릭과 개신교를 막론하고, 선교사 중심으로 이뤄졌다. 더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근대선교는 서구의 세계 확장 과정과 더불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선교는 서구적 문명화와 결부되었고, 그에 따라 선교사의 우월주의가 나타났다. 물론 선교사가 현지 문화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선교사의 우월주의의 양상은 다소 차이가 났다. 간단히 말해, 남미의 경우, 선교사는 현지 문화와 종교를 저급하게 여겨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마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양 취급하였다(*tabla rasa*). 그러나 아시아의 경우, 선교사는 아시아의 수준 높은 문명에 직면하면서 현지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여 소위 보충론적 입

14 안교성, "한경직 목사와 세계선교", (미간행발표논문, 한국교회사학회 제114차 학술대회: 한경직 목사 특별 세미나, 2012년 4월 19-20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자료집), 143.

장(complementary attitude)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양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선교사들은 선교사 중심으로 선교를 진행했고, 그 결과 현지인 교역자 배출에 매우 인색했다.¹⁵ 선교 초기에 현지인 교역자를 배출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현상은 단절되어 몇 세기나 이어진 경우까지 있었다. 또한 많은 경우 개척 선교사들보다 후임 선교사들 혹은 제2세대 선교사들이 오히려 현지를 무시하는 경향을 더 드러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현지인보다는 선교사를 더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났다.¹⁶ 이것은 아마도 선교사가 현지인을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선교사 모라토리움

선교사 우월주의와 관련된 것이 선교사 온정주의이다. 비록 선교가 발전되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선교사가 현지인 중심의 선교를 생각하지 않는 한, 선교사의 실제적인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선교사는 조바심도 경계해야 하지만, 노파심도 경계해야 한다.

잘 알려진 바대로, 1970년대 세계교회, 특히 아프리카교회는 선교사 모라토리움(missionary moratorium)으로 몸살을 앓았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한국에서도 1925년 존 모트 선교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한석진 목사가 한국형의 선교사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바 있다. 즉 선교사에게 고향으로든 영원한 본향으로든 떠나라는 요구를

15 C. R. Boxer, "The Problem of the Native Clergy in the Portuguese and Spanish Empires from the Sixteenth to the Eighteenth Centuries", G. J. Cuming, ed., *The Mission of the Church and the Propagation of the Fai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85-105.

16 A. F. Walls, "A Christian Experiment: The Early Sierra Leone Colony", *Ibid.*, 107-129.

했던 것이다.

사실, 한국교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교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지만, 자세한 사정을 들여다보면, 즉 선교사 출구계획 특히 이양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한국장로교회의 경우, 자전, 자립, 자치의 삼자정책의 목적을 완수했지만, 서구선교는 한국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바이에르하우스는 서구선교가 한국장로교회의 교단 설립 이후, 교회 사역은 한국교회에 맡기고 교육 및 의료 등 기관사역에 전념했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서구선교부는 기관사역에 대한 이양준비가 거의 안 된 상태에서 태평양전쟁을 맞았고, 일본으로부터 추방됨에 따라 기관사역은 파탄 나고 말았다.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는 선교사의 성공주의라는 면에서는 서구선교에 큰 영향을 받았지만, 선교사 출구계획에 있어서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지적한 바대로 한국에서 사역했던 서구선교부들은 이양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다. 선교사 중심의 출구계획

최근 들어 선교사 중심의 출구계획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서론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선교사 출구계획은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선교사 중심의 출구계획은 또 다른 형태의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현지인과 더불어, 현지인 중심의 출구계획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삼자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삼자정책의 상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룰 수는 없고, 중요한 핵심만 지적하

기로 한다. 삼자정책의 대표적인 인물은 선교본부의 행정가로는 영국의 헨리 벤, 미국의 루프스 앤더슨이 있다. 그리고 선교사로는 중국의 존 네비우스가 있고, 인도의 윌리엄 테일러가 있다.

그런데 삼자정책의 핵심은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자립이고, 자립이 중요한 이유는 만성적인 선교자금의 부족현상 때문이다. 선교역사를 상세히 살펴보면, 선교는 언제나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현상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선교사는 인적 자원의 문제는 현지인 교역자로, 물적 자원의 문제는 자립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삼자정책은 그 실효성도 문제이지만 -한국 이외에 성공 사례가 드물고, 한국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만 실현되었다-삼자정책이 선교 본질에 대한 질문보다 선교 현실에 대한 대안의 성격이 강하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가령 헨리 벤은 삼자정책이 실현될 경우, 소위 선교의 안락사(euthanasia of missions)를 주장했지만, 헨리 벤이 사무엘 크라우터를 감독으로 삼은 일이나 백인 선교사들이 흑인 감독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은 일 등을 볼 때 결국 실패한 정책 혹은 이양을 위한 이양이었다고 볼 수 있다.

윌리엄 테일러의 경우도, 그 자신은 삼자정책을 고수했지만, 선교본부에서 현지인의 독립을 우려한 결과 오히려 삼자정책을 무시하고 보조금을 받도록 요구한 사례도 있다. 또한 브라질의 경우, 선교의 안락사의 개념에 따라, 선교사는 개척지인 내지로 옮겨가고, 교회는 교회가 발전된 해안지역에 남는 분할정책을 사용했지만, 결국 시너지 효과

를 맞보지 못하고 교회의 쇠퇴를 경험한 적도 있다.¹⁸ 따라서 삼자정책의 적용은 신중하고도 실제적인 이해가 요청된다. 또한 선교사 출구계획은 선교사만이 아니라 현지 선교회, 선교본부, 본국의 교단 및 후원교회 그리고 현지인, 현지 교회, 현지 교단, 기타 에큐메니칼 기구 등 다양한 당사자들이 공감하고 결단하지 않은 한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라. 선교사 및 선교기관의 특성과 선교사 출구계획

마지막으로 잇기 쉬운 문제는 선교사 출구계획은 현지 상황의 차이에 따라서도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선교사 및 선교기관의 특성에 따라서도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선교사 출구계획은 획일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니엘 플레밍은 인디아인도에서 사역한 5개의 상이한 전통을 지닌 선교기관의 이양 과정을 다루면서, 이양에 나타난 많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¹⁹ 즉 선교기관의 교회론 특히 직제의 특성에 따라, 이양의 과정, 목적, 이해 등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가령 감독제를 택한 감리교 선교부의 경우와 회중제를 따르는 침례교 선교부의 경우, 이양의 양상은 같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회중제의 경우, 이양이 가장 간단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영국성공회 고교회파에 속한 해외복음전도협회(SPG) 선교회 선교사인 롤란드 알레이 막상 그의 선교 이론에서는 회중제적 성격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²⁰ 따라서 선교사 출구계획은 선교지

18 Paul E. Pierson, *A Younger Church in Search of Maturity: Presbyterianism in Brazil from 1910 to 1959* (San Antonio: Trinity University Press, 1974).

19 Daniel J. Fleming, *Devolution in Mission Administration: As Exemplified by the Legislative History of Five American Missionary Societies in India* (London: Fleming H. Revell Co., 1916).

의 현재 및 미래뿐 아니라, 선교의 역사와 전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현지 교회의 대두와 선교사 출구계획

20세기는 선교와 선교신학의 급변기였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하여, 에큐메니칼 운동과 에큐메니칼 선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이것이 오늘날 한국선교의 시대착오적 특성을 초래하고 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 선교운동의 자녀라는 것은 상식이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가 근대 선교운동의 최고봉인 동시에 현대 선교운동의 시작이었고, 동시에 에큐메니칼 운동의 분수령이 되었다는 것도 잘 알려졌다. 그렇다면, 선교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선교운동의 자녀인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에큐메니칼 운동의 관점을 반영한 에큐메니칼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에큐메니칼 선교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경우, 선교사 출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여전히 선교기관 위주의 출구계획 혹은 실용적인 차원에서만의 출구계획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20세기 후반, 전통적인 선교관을 유지하는 경우, 선교협력을 실용적인 차원에서만 추구하는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에큐메니칼 선교가 본격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1945년 이후, 특히 1950년대 이후였다. 이 자리에서 에큐메니칼 선교를 상술할 수는 없지만, 이에 관해 간단히 세 가지 점을 지적하자.²¹

첫째, 선교 주체의 변화이다. ‘서구 선교기관 위주의 선교’로부터

20 롤랑 알렌, <바울의 선교방법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현지 교회 위주의 선교’로 전환되는 선교이다. 따라서 선교사는 이제 파송되는 자가 아닌 초대되는 자요, 자기의 과제를 수행하는 전통적인 선교사(missionary)가 아닌, 현지 교회의 선교적 과제를 돕는 선교 동역자(mission co-worker)이다. 물론 완전한 개척선교의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오늘날 적어도 국가 단위에서 개척선교가 가능한 곳은 거의 없다.

둘째, 선교 관계의 변화이다. ‘서구 선교기관과 현지 교회가 상하관계를 이루는 선교’로부터 ‘모든 교회가 자매교회로서 직접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이루는 선교’로 전환되는 선교이다.

셋째, 선교 영역의 변화이다. ‘복음전도 위주의 선교, 혹은 복음사역과 기관사역-교육, 의료, 구제 등-을 병행하는 선교’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방위적인 선교’로 전환되는 선교이다. 이런 선교개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이다.

이러한 에큐메니칼 선교의 선교관을 수용하든 않든 간에, 현대선교는 현지 교회의 존재를 무시하고서는 수행할 수 없다. 만일 현지 교회의 존재를 무시한다면, 그런 선교는 시대착오적인 선교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선교가 현지 교회라는 스스로의 선교사역의 열매를 도외시하는 자기배반적인 선교가 될 수 밖에 없다.

사실상 에큐메니칼 선교의 특징들은 이미 20세기 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되었다. 1910년 에딘버러대회부터 비서구 교회 곧 현지인 교회가 비록 소수이기는 했으나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28년 예루살렘대

21 안교성, “해방 후부터 1970년대까지의 한국교회의 선교(1): 에큐메니칼 선교의 대두의 의미”, 《한국선교 KMQ》 35(10)/1, 2010 가을: 95-106.

회에서는 서구 교회와 비서구 교회가 모·자교회의 관계에서 자매교회의 관계로 인식되었고, 1938년 탐바람대회에서는 비서구 교회가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오늘날 비서구 교회가 세계교회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게 된 것은, 이런 비서구 교회의 대두의 유구한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전통적인 선교관을 유지하는 측은 여전히 선교와 교회(missions-church) 관계 패러다임으로 선교를 보려고 하지만, 비서구 교회는 교회와 교회(church-church) 관계 패러다임으로 선교를 보려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미 20세기 전반에 선교사의 이미지를 지도자에서 협력자로 바꾸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런 변화가 강력하게 제기되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한국선교에도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지 기독교의 주체가 현지인이라는 현상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가령, 중국의 경우, 기독교학 교의 대표들이 반드시 중국인이 되어야 한다는 조치에 따라, 교육선교에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한국에는 이런 변화가 제대로 수용되지 않다가, 신사참배 이후 대규모 폐교문제로 인하여 큰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²²

따라서 에큐메니칼 선교가 선교사 출구계획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은, 이 문제를 기존의 선교와 교회 관계의 틀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세계교회의 변화의 틀에서 보라는 것이다. 최근 들어 전자의 틀에서 주로 협동, 책무 등이 논의되어 왔다.²³ 그러나

22 박혜진, "서울지역 미 북장로회 선교부의 교육사업 철수와 학교 인계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32(2010, 3): 159-193.

후자의 틀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령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7년 휘트비 국제선교협의회 대회의 주제는 “순종 속의 협력(partnership in obedience)”이었다. 서구 선교(또한 서구 교회)와 비서구 교회가 서로 순종하는 가운데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순종 속의 협력이 사실은 서구 선교에게는 협력을 의미하지만 비서구 교회에게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런 식의 편파적인 협력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3. 세계기독교 시대와 선교사 출구계획

오늘날 흔히 세계기독교(World Christianity) 시대가 도래했다 혹은 남반구기독교 시대(Southern Christianity)가 대두했다고 말한다. 그 의미가 다양하지만 선교사 출구계획과 관련된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제 세계 기독교는 다중심적(poly-centric) 기독교이다. 이런 맥락에서 서구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도착화된 기독교 즉 서구적 도착기독교이다.

둘째, 이제는 [서구선교-비서구교회 관계나 [서구교회-비서구교회 관계를 넘어서서, [비서구교회-비서구교회 관계, [서구선교-비서구선교 관계, [비서구선교-비서구선교 관계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선교기관의 영역에 있어서도, 서구 선교기관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뿐 아니라, 비서구 선교기관의 국제화

23 William D. Taylor, ed., Kingdom Partnerships for Synergy in Missions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94); Daniel Rickett & Dotsey Welliver, eds., Supporting Indigenous Ministries (Wheaton: Billy Graham Center, 1997); 조나단 볼크 외, <<선교 책무: 21세기 한국과 북미 선교 연구>>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1).

까지 대두되고 있다.²⁴ 따라서 선교사 출구계획의 새로운 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선교사 출구계획을 마련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아울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선교사 측에서 볼 때, 출구전략 자체가 선교의 목적이나 유일한 선교의 미래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 지역의 출구전략은 선교사의 지속적인 체재와 병행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의 입구전략과 연계될 수도 있다. 스콧 선퀴스트는 미국 장로교 선교를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오늘날 현지 상황을 잘 아는 선교사가 줄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²⁵ 즉 선교사가 철수하거나 단기 선교사로 대체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여전히 장기 선교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선교 맥락 가운데 장기 선교사의 체재의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 선교사는 교회의 세계성 혹은 에큐메니칼성의 살아있는 상징이 될 수 있다.

둘째, 현지인 측에서 볼 때, 선교사 출구계획은 현지 교회 혹은 현지 기독교 공동체의 [출구 후] 지속전략과 연결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지속에 머물지 말고,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해야 한다.²⁶ 이런 전망을 염두에 두고, 선교사 입구전략, 유지전략, 출구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요즘에 발간되는 세속 NGO의 보고에 의하면 선부른 이양 혹은 이

24 Hansung Kim,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ree Korean Mission Agencies" (Unpublished D.Miss. Dissertation, Biola University, 2011).

25 Scott W. Sunquist & Caroline N. Becker, eds., A History of Presbyterian Missions, 1944–2007 (Louisville: Geneva Press, 2008), 301.

26 Bryant L. Myers, Walking with the Poor: Principles and Practices of Transformational Development (Maryknoll: Orbis, 1999), 128.

양을 위한 이양의 문제가 선교뿐만 아니라, NGO 사역과 관련해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건전한 이양을 위해서는 재산, 지도력 위임 뿐 아니라,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 전체의 주인의식, 참여의식, 책임의식 등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출구계획을 출구전략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입구전략, 유지 전략부터 현지인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출구 후] 지속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

III. 결론: 한국선교, 선교사 출구전략의 새로운 응전이 될 수 있는가?

한국교회는 그동안 성장 패러다임 일색이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오늘날 성장이 멈추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패러다임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문제 해결은커녕 문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선교도 그동안 성장 패러다임 일색이었다. 그래서 한국선교도 한국교회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IBMR호 특집에서도 문상철은 이와 동일한 질문을 던졌지만, 구체적인 해답은 제시하지 않았다.²⁷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가 던진 7가지 중요한 질문 가운데, 선교사 출구계획이나 이양에 관한 질문은 없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한국선교의 문제가 제기되면서도, 아직까지 선교사 출구계획이나 이양 문제가 본격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더구나 한국선교가 자립형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의존하는 의존형

27 Steve Sang-Cheol Moon, "Missions from Korea 2012: Slowdown and Maturation",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36/2 (April, 2012): 84-85, 특히 84.

혹은 기생형인 만큼, 한국교회의 쇠퇴는 한국선교의 쇠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한국선교에서 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되는 선교 슬로건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비록 주로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한국선교가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부디 한국선교가 선교사 출구계획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이고도 정당하게 응전함으로써, 선교 선진국의 면모를 보이는 한편, 한국선교는 물론이고, 세계선교 특히 새롭게 대두되는 비서구 선교에게 희망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란다.

